

서울어린이대공원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공모' 당선작)

이상미

Map your mind

: 산책자의 마음에 따라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도가 되는 마음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의 각자의 추억만큼 마음의 지도가 쌓여 가길 바란다.

7월의 한여름, 여느 공원의 풍경.

도시의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의 동네는 보통의 평범한 마을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 곳에서 자란 나는 내 이웃 주변의 풍경들이 많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 중에 유일하게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곳에는 나의 추억도 함께 공존해있다. 바로 어린이대공원이다. 그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추억이 이 공원의 시간도 함께 채워갔지만, 나의 어린이대공원의 추억은 7월의 한여름에서 멈춰버렸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운 마음 하나는 안고 살아간다. 내 이야기도 이런 사소한 그리움으로 시작된다.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30대의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어린이대공원 산책을 하나의 일상으로 여긴다. 어린 나에게 대공원은 너무나도 큰 모험과 미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매일 가고 싶은 공간이었다. 호랑이와 사자가 살고 있는 무서운 곳이기도 했지만, 코끼리와 토끼 다람쥐 같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하니까. 아빠,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소풍 와서 김밥을 나눠먹으며, 솜사탕 사달라고 조르던 어린 나는 이 곳에서 동심을 만들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작년 7월, 내게 이 공간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하다. 어렸을 때는 소풍으로 왔고, 성인이 되서는 산책을 함께 해온 아빠가 이제는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부모의 부재는 큰 상실감으로 오기 마련이지만,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빠의 부재는 위로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늦둥이로 태어난 나는 어렸을 적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늘 품고 지냈다. 그래서 더 많은 추억을 부모님과 공유하고 싶었지만, 매일 일하시느라 바쁜 나의 부모님은 휴가는 못 챙겨도 매번 시간 내어 같이 소풍가는 곳이 유일하게도 어린이대공원이었다. 대공원은 도심 속에 있는 동물원이자 숲으로 집에서 가까워 특별한 준비 없이 갈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이기도하고, 작은 동화 같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한 그런 마법의 공간이었다. 그렇게 나의 어린 시절은 어린이대공원의 시간과 함께 성장해갔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이 동네에서 살았고, 대공원에서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며 삶의 소소한 행복을 채워갔다. 그러나 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 큰 위안이자 힘이였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상실의 괴로움으로 대공원을 산책하는 것조차 아니 방문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폐암 선고를 받고 1년을 어린이대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지내셨다. 대공원 곳곳마다 벤치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걸다가 숨이 차면 꼭 쉬시려고 앉는 벤치가 있다. 그 의자가 나침반이 되어, 아버지의 산책코스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한걸음 뒤에서 아버지를 부축하며, 그렇게 나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마지막 어린이대공원의 산책과 추억을 쌓아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그리움이라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떠나셨다. 그리고 이 후에 나는 대공원을 갈 때마다, 아버지와 걸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 슬퍼 선뜻 다시 산책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공원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준 공간이지만 이제는 내게 슬픈 그리움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대공원을 무심코 다시 걸었다. 어쩌면 그 공간이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리워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문득 하였다. 공간은 추억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그 추억을 다시 살게 한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공간은 아마 이 곳을 방문한 많은 이들에게 각자만의 추억을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 추억은 이 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모두 살아있다. 예술은 타인과 함께 지각하고 나누며, 인간적으로 고양될 때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술을 통해 누군가는 사유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공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의 사소한 그리움으로 시작된 사적인 이야기로 출발해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타인과 함께 나누며, 삶의 소소한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공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추억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록하고 싶기도 하다.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설치 될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만의 추억과 그리움의 지도를 산책이라는 행위로 그려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한다.